“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서학개미, 3배 레버리지에 베팅

이달 美 주식 24억달러 순매수
반도체 3배 ETF에 19억달러 집중
기술주 반등 기대에 저가 매수
손실 만회 위해 빚내서 물타기도
금리 불안 속 고위험 투자 우려


반도체 급락장에서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를 쓸어 담은 서학개미를 형상화한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직장인 이모(35)씨는 최근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4500만원어치를 산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SOXL)의 손실률이 60%에 육박하자 ‘물타기(추가 매수)’에 나서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부탁받은 친구 역시 주식으로 크게 잃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는 처지였다. 결국 이씨는 은행에서 3000만원을 빌려 예탁금 요건을 채우고 일부 금액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또 샀다. 이씨는 “여기서는 분명히 오를 것 같아 한 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손실률이 겨우 55%로 줄었지만, 익사 직전이라 고개라도 빼꼼 내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간첩 불륜’ 스캔들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우려 속에서도 서학 개미(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기술주에 공격적으로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판단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다. 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투자로 분류되는 지수를 2배 또는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과감한 투자에 나선 경향도 나타났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11일 서학 개미들의 미 주식 매입액은 24억3802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10월(54억2312만달러)의 45%에 달한다.

서학 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올해 상반기와 뚜렷하게 차이 난다. 지난 4·5월에는 정부의 국내 증시 복귀 정책과 함께 미 증시에서 각각 4억6893만 달러와 9억3977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이후 매집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월간 순매수는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것은 기술주였다. 상위 5개 종목 중 4개가 기술주거나 관련 상품이었다. 엔비디아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간첩 불륜’ 스캔들 사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등으로 따라 글로벌 반도체주와 AI관련주 전반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도 순매수세가 이어진 것이다.

순매수 1위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SOXL)였다. 순매수 결제액은 18억9148만달러로 전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의 77.58%를 차지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도 5억1290만달러, 나스닥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울트라프로 QQQ(TQQQ)’와 2배로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QQQ’(QLD)도 각각 4억3535만달러, 2억9011만달러어치 사들였다.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쏠림에는 손실을 한 번에 만회하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신의 예측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과잉확신’과 손실 확정을 꺼리는 ‘손실회피’ 성향이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시장의 등락 폭이 크다 보니 본인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크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이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며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복권을 사듯 ‘나도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 등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다는 데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국고채 담합 과징금에 증권사 실적 ‘휘청’

KB증권 3분기 591억 순손실 전환
NH·미래에셋 등 4분기 부담 전망
신평사 “자본·신용등급 영향 제한”
업계, 과징금 산정 반발·소송 검토


국회에서 바라본 여의도 금융투자업계 전경. /허정윤 기자

국고채 입찰 담합 제재의 여파가 증권사들의 하반기 실적으로 번지고 있다. 과징금 부과액을 충당부채로 잡은 증권사가 3분기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4분기에도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회사가 나올 전망이다. 증권업계가 과징금 산정 방식에 반발하면서 최종 부담액은 불복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3분기 실적 정정 이어 4분기 부담… 이익 규모 따라 충격 차이

12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KB증권의 3분기 잠정실적 공시를 인용해 회사가 과징금 부과액 3322억원 전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장부에 잡으면서 3분기 연결 실적은 순이익 2730억원에서 순손실 591억원으로 바뀌었다. 키움증권도 같은 분기 잠정 순이익을 2386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낮췄다.

4분기에는 과징금이 분기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회사별 충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부과액이 각각 2428억원과 2148억원인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4분기 실적 부담이 커졌다고 봤다. 대신증권은 부과액이 1201억원으로 두 회사보다 작지만, 평소 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분기 적자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KB증권의 과징금 부과액은 54.2%에 해당한다. 한신평 집계에서 미래에셋증권은 36.1%, NH투자증권은 26.7%, 대신증권은 25.3%였다. 윤소정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증권업 영업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과징금 관련 비용이 반영되면 수익성 저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익 감소가 자본적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폭은 제한적이라는 게 한신평의 판단이다. 지난해 순이익의 절반을 웃도는 KB증권의 부과액도 올해 6월 말 자기자본과 비교하면 4.2%였다. 한신평은 주요 증권사의 자본 규모와 이익창출력을 감안하면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도 제재 대상 금융회사들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신승환 나신평 책임연구원과 곽노경 금융평가1실장은 증권사별 부과액이 6월 말 자기자본의 0.3~4.2% 수준이라며, 평소 이익창출력과 유동성 대응 여력을 감안하면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나신평은 회사별 충당부채 계상 규모와 실제 납부 부담, 불복 절차에 따른 최종 부과액 변동을 점검할 계획이다.

증권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에도 현재 주가 수준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업황 둔화 우려로 증권업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7배 수준까지 낮아졌고 주요 고배당주의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이 약 9%에 이른다며, 중장기 저평가 매력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 증권업계 “낙찰액 기준 과도”… 납부 일정·불복 절차 변수

증권업계가 문제 삼는 건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이다. 공정위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응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국고채 낙찰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 등을 고려해 7개 법인은 고발하기로 했다.

업계는 낙찰액이 국고채를 인수하는 데 들인 금액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영업수익에 비해 제재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주장한다. 전문딜러는 인수한 국고채를 보험사나 공제회 등 기관에 넘기거나 직접 운용한다. 유통시장에서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뒷받침한다. 인수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 보유분에서 평가손실이 나거나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이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번 제재 수위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 업계가 과징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투협, 22년째 이어온 따뜻한 나눔

김포 ‘소망의 집’ 나들이 봉사
후원금 600만원·생필품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11월 12일 경기도 김포시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의 집’을 찾아 김장 봉사와 나들이 동행 활동을 진행하고, 후원금 600만원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임직원들이 겨울을 앞두고 경기 김포의 장애인 생활시설 ‘소망의 집’을 찾았다. 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이용자들의 나들이에 동행했다. 2005년 결연으로 시작된 인연은 올해로 22년째다.

금투협은 12일 소망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임직원 급여를 모아 마련한 후원금 600만원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나들이에 함께한 시설 이용자들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금투협은 소망의 집과 결연을 맺은 뒤 임직원 급여를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고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연말에는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립준비청년 후원사업과 소외계층 학용품 지원, 심장병 수술 지원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회 임직원 1인 1봉사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김진억 금투협 대외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도움을 살피고, 꾸준한 봉사와 후원으로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케이뱅크 등 5개 종목 MSCI 스몰캡 편입

성호전자·삼현·우리기술 등 포함
30일 장 마감 후 변경 사항 적용

케이뱅크와 성호전자 등 국내 5개 종목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스몰캡 지수에 새로 들어간다. 중대형주로 구성된 한국 스탠더드 지수는 기존 종목을 유지한다.

MSCI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11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 스몰캡 지수에 케이뱅크, 삼현, 성호전자, 대한광통신, 우리기술이 신규 편입됐다.

한화머시너리서비스, 오름테라퓨틱, SNT다이내믹스, STX엔진 등 4개 종목은 지수에서 빠진다. 변경된 종목 구성은 오는 30일 장 마감 후 반영된다.

MSCI 지수는 글로벌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운용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인 주가지수다.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구성 종목이 바뀌면 보유 주식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편입 종목에는 매수 수요가, 편출 종목에는 매도 물량이 생길 수 있다.

MSCI는 매년 2월과 5월, 8월, 11월 정기 리뷰를 진행한다.

전체 시가총액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의 가치를 반영한 유동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구성 종목을 조정한다.

/허정윤 기자